

地球의
超異變



Pole Shift!?

— 全面 核戰爭보다도 더 兇惡한 破局이? —

존·화이트 著
張世元 譯

〈前月號에서 계속〉

그러나 노스트르담스는 지각격변(地殼激變)도 예언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노스트르담스는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말하지 않았단 말인가. 만약 아무 것도 말하지 않았더라면 날카로우며 요괴(妖怪)한 그의 예지의 실층에는 포울·시프트는 영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우리들에게는 매우 다행한 일이다. 물론 「1999년의 와멸대전」은 어렵겠으나 대전은 그래도 인위적인 것. 사람의 힘으로 저지할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아무래도 그러하지는 않은 것 같다. 「제세기」를 다시 읽어보면 포울·시프트라든가 지축역전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있으나 거기에 가까운 격렬한 천지이변을 예지한 시가 몇개 있음을 우리들은 알 수 있다. 예로—

해가 타우르스의 20번째에 올 때
 대지는 격렬하게 요동하며
 그 거대한 만원의 극장은 순식간에
 폐허화가 되리라
 대기도 하늘도 땅도 혼탁하고 어둡게 되며
 불신자인 자들은 신이나 성자의
 이름을 필사적으로 부르리라

(9권의 83)

40년간 무지개는 나타나지 않으며
 40년간은 매일 나타난다.
 말라붙은 불모의 대지는 확대되고

거대한 대홍수는 그때 일어나리라
 대지도 대기도 냉각해진다.
 큰 물도 함께
 공포의 목요일이 닥쳐올 때
 그리고 밝은 날은 없어진다
 네개의 장소에서 그것이 시작되고
 그날은 영원히 기억되리라

(10권의 71)

이 10권 71번의 시는 시의 순서상 「1999년 7의 달」의 시 하나 앞에 놓여 있다. 순서가 이같이 가까우니 예지된 현상의 시기도 가깝다고는 할 수 없으나 노스트르담스는 시기적으로 가까운 중대한 사실을 몇가지 예지했을 경우 그러한 것들을 그린 몇개의 시의 순서를 관련시키거나 계속 이어지는 수편의 시 가운데서 그러한 것들을 그리는 일이 많았다.



중말의 대예언자 노스트르담스

「지구 전체의 불모(不毛)와 대홍수가 일어난다?」

라고 한다면 이 차가와지는 시(詩)는 1999년에 극히 가까운 시기, 90년대나 80년대 의 기후를 예지한 것이 된다.

그것이 지금 적중하고 있는 것이다. 나라에 따라서는 열파(熱波)가 덮치고 있는 곳 도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지구에는 「소빙기형」(小氷期型)이라고 하는 한냉(寒冷)이 닥치고 있다. 당신도 여기 수년동안의 냉하(冷夏)와 냉해, 호설(豪雪)등 이 상한파(異常寒波)를 싫도록 체험했을 것이다.

더우기 여기에 겹쳐, 전술한 1권 17번의 「40년간 무지개는 나타나지 않고」와 「40년 간 매일 나타난다」는 결론부터 말하여 같은 40년간의 일을 말하고 있는듯 하다.

그 40년간에 지구의 어느 지역에서는 비가 많은 축축한 기후가 다른 어느 지역에서 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말라붙은 기후가 계속된다는 것을 시적(詩的)인 표현으로 나타낸 것이 이 두줄에서 엿보인다.

그러니 이 40년간이라는 것은 (시집 전체가 1999년의 타임리미트에 제약되고 있다) 1959년에서 99년까지의 40년간을 말한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이것도 적중했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의 소빙기형의 격렬한 이상기상(異狀氣象)이 시작된 것은 핵실험과 자연파괴가 방임되기 시작한 50년대 말에서 60년대 시초에 걸쳐 서였다. 이후 이때까지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열파와 한파, 그리고 호우와 한발의 이 상이 2매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 결과에 온다는 「지구 전체의 불모」와 「대홍수」, 이것도 적중할 것이 아 닌가. 아니 그것은 아프리카에서 선진국에게까지 덮치는 여러가지 종류의 사막화(砂漠化)→식량위기라는 형태가 이미 적중되기 시작한 것이 아닌지.

에드가·케이시의 예지를 여기에서 다시 상기 해보자. 케이시도 지축(地軸)이 역전 하여, 예로 일본등이 바다밑으로 갈아앉을 정도의 대이변이 1985년의 전조(前兆)에서 부터 서서히 시작하여 98년에는 결정적으로 일어난다고 말했다.

거의 같은 사실을 그 400년전 노스트르담스도 기록해 놓고 있었다는 것은 두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에 그러한 계시(啓示)를 준 「근원자」(根源者)가 어찌면 동일한 「근원자」

가 아니었는지.

「5월 10일에 무너져 없어지는 대극장(大劇場)이란

이 어푸로우치가 먼저의 3시(詩)의 최초에서 말한 9권 83번의 예지로 이어진다. 이 첫줄의 「해가 타우르스의 20번째에 올때」라는 것은 점성술(占星術)에서 말하는 축좌(丑座)의 20번째의 날 즉 5월 10일을 말한다.

어느 해의 5월 10일인지는 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이 추구해 온 문명의 날, 「2000년 5월 5일」이다. 날짜로 따지면 불과 5일밖에 들리지 않는다.

그날에 대지는 「격렬하게 요동하며», 「대기도, 하늘도, 땅도 혼탁하고 캄캄해지며」 「만원의 거대한 극장은 순식간에 폐허화가 된다」고 노스트르담스는 예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극장이 어느 곳의 어느 극장인지를 암시해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이번의 피해는 그곳만으로 끝나게 될 것이니...

그러나 「대기도, 하늘도, 땅도 캄캄해진다」는 정도의 엄청난 전면적인 대지의 요동이 그러한 특정의 극장만의 피해로 끝날 것인지.

그렇게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 「거대한 만원의 극장」이라는 것은 그 실은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만원이 되는 20세기말의 세계전체를 그 속에서 드라마틱한 비극 희극 잔악한 액션과 애증 슬리러가 매일 연출되고 있는 오늘날의 문명전체를 “인류극장”으로 비유하여 암시한 것이 아니었는지.

또 그 전부가 그날 5월 10일의 「캄캄한 하늘과 대기」 속에서 「격렬하게 요동하며 무너져 사라진다」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었는지.

그외에는 벨런스가 잡힌 다른 적당한 해석이라고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인류전부가 망할 것인지 아닌지는 고사하고 적어도 현재의 문명을 붕괴시킬 정도의 자연이변이 닥칠 것을 노스트르담스는 역시 예감하고 있었던 같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이 포울 시프트인지는 시의 표현으로서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거기에 가까운 대이변이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고.

이것이 결론이 된다. 노스트르담스는 지축역전(地軸逆轉)을 명확하게는 예언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확한 의미에서의 지축역전은 오지 않을 듯하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더미지를 인류에 주는 대이변은 결코 닥쳐온다.

어느 해인지는 알 수 없으나 80년대에서 90년대에 걸쳐서 한냉기와 대한발, 대홍수 그리고 1999년의 대전(大戰)과 밀접하게 얽히게 되는 해의 5월 10일에—.

유엔(UN)의 최신발표도 역시 같은 결론

믿지 싶지도 않으며 믿을 수도 없다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예언이니 영감이니, 묵시록이니, 노스트르담스니 모두가 웃기는 비과학적인 것이다라고 편사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들은 여기서 다시 한번 냉엄한 과학예측으로 되돌

아 간다. 84년 2월 17일 유엔의 과학기관인 UNEP (國聯環境計劃本部)는 이러한 가
공할 예측을 발표했다. 각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보도했으니 이를 시청한 사람들도 많
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내용은 이렇다.

「끝 없는 자연파괴와 인구증가에 의해 2000년에는 지구의 육지 35퍼센트는 사막화
한다. 이를 막는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다. 그 때문에 2000년대에 닥치는 지구규모의
대재해는 피할 수 없다」.

수십명의 UN과학 스태프와 관측위성의 데이터를 총동원하여 예측한 지금의 환경과학
의 총력이다. 그것은 이상하게도 「제세기」(諸世紀) 1권의 17과 9권의 83에 나오는
금세기 말까지의 「말라붙은 불모의 매지의 확대」와 「거대한 만원의 내극장이 그날 폐
허가 된다」는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이 되고 있다.

그것을 인류의 대표기관인 유엔 스스로가 선언한 것이다. 가령 최종전쟁이 오지 않
아도, 포울·시프트가 일어나지 않아도 지금의 광적인 인류문명의 진행만으로도 지구는
십수년 후에 그렇게 된다고. —

이것이 과학예측에서 본 결론이다. 이 과학예측이나 비과학적인 호능력의 예지나 어
느 것도 거의 같은 미래가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는 너무나 처참한 결과이며 구원조차 받을 수 없는 사실이다. 어떻게든 최
후의 힘을 다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글을 써 보아야 하겠다.

나는 여기에서 처음으로 리포터로서의 입장을 떠나 자기자신의 의견을, 그리고 신비
로운 예언의 저편에 있는 「근원자」의 정체를 통하여 이러한 상황에서의 탈출의 길을.

나는 예언 그 자체 속에 숨겨진 구원의 가능성을...



산림의 남벌, 배기 가스등의 자연파괴가 지구의 사막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사진은 한발로 쓰러지는 아프리카의 原住民과 가축들.

제 7 의 레포트

파멸의 날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왜 「2000년 5월 5일」인가!

당신과 같이 나도 실은 2000년 5월 5일의 대파국을 결코 믿고 싶지 않다.

가령 그날 아무리 이상한 혹성정렬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이 파멸의 방아쇠가 되리라고
는 믿고 싶지 않다. 그 때 지구는 그러한 일로 요동하여 기울어지는 것과 같은 상태
가 되지 않을 것으로 나는 믿고 싶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희망과 감정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희망과 감정
으로부터 벗어나 냉정한 눈으로 본다면 지금 지구와 인류는 희망과는 전혀 다른 역방
향으로 서서히 속도를 더해 가면서 쿨러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보아도 사실임
은 알 수 있다.

다음은 그 최종적인 종합이다. 최신의 정보를 놓고 함께 다시보면 위기는 다음 다섯
가지의 뜻을 특히 강하게 나타내 있다.

(1) 기상광란

이상하게도 노스트르담스가 예언한 것과 같이 이것은 1960년대에 시작된 것이다. 70년대에는 기분 나쁜 이상 기상이 세계로 번져갔다.

그리고 지금 80년대에 들어서서는 100년만에 1000년만에 때로는 역사 이래 초유의 광란한 기상이 매년 빈번하게 각국을 덮치도록 되어 있다. 북아메리카나 북유럽에서는 최근 10년간에 이상한파와 이상열파로 1만명 이상이 죽었다. 또 산성(酸性)비의 피해가 겹쳐, 전면적(全面積)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산림이 말라 죽었다.

82년과 83년에 남미(南美)를 휩쓴 홍수 같은 때, 오스트레일리아를 덮친 한발로 갈라진 매지나 홍탕불에 동물의 시체가 즐비하여 실로 노스트르담스의 예언이 실현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 정도로 대단했다.

아프리카는 더욱 심하며 앞으로 10수년이 지나면 전토가 사막화할 것이다. 현재 10수개국을 덮치고 있는 기근은 금세기말까지에는 전아프리카로 확대될 것이라고 FAO(國聯食糧農業기관)는 예측하고 있다.

원민은 무계획적인 화전(火災), 산림의 남벌, 대분화, 제트, 차량, 공업의 배기, 도시화 냉난방, 해수의 오염... 등등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것 전부가 원인일 것이다. 이러한 원인 때문에 지구의 기상전체가 미친듯 사납게 날꺾 것이다.

지구의 기상전체가 미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고기압, 저기압의 정상적인 흐름이 빛나간다는 것. 즉 지구 표면의 각부분에 걸친 대기의 무게가 미치고만다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팽이의 예를 다시 인용해 본다면 이는 회전하고 있는 팽이 주위의 공기가 정상적이 아니라는 것과 비슷하다.

주위의 공기가 이상하게 된다. 즉 차가와지거나 뜨겁게 되어 그 때문에 공기의 흐름과 무게가 변하게 되면서 그것과 스치면서 회전하고 있는 팽이의 밸런스는 미묘하게 흔들린다. 공기의 흐름이 더욱 흐트러지면 팽이는 요동하면서 끝내는 중심이 기울게 된다.

같은 현상이 지구 규모로 일어난다면 그것은 포올·시프트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이 된다. 그러나 자연의 분화등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끝도 없는 차량이나 제트의 증대, 그칠줄 모르는 사막화의 현상이나 화전과 남벌 그리고 해수오염... 따위는 지금 곧 어떻게라도 하지 않으면 지금의 비정상적인 기상은 끝내 시프트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다음호에 계속)

